

말뭉치에 나타난 ‘-도록’의 형태·분포적 특성

이진병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도록’의 분포적 특성 |
| 2. “X도록” 형태의 특성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도록’의 형태와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록’의 형태와 통사적 위치를 다시 정리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연구자의 직관이 개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언어의 실질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래서 말뭉치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말뭉치 검색 결과로 추출된 11,198문장을 분석하여 ‘-도록’에 선·후행하는 성분의 분포 제약을 정리하였다. 이는 특히 선행 성분으로 형용사나 ‘이다’나 ‘아니다’가 올 수 있는가 하는 논란, 후행 서술어로 ‘이다’가 쓰일 수 있는 하는 논란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용량의 언어 자료는 지금도 그 처리가 용이치 않다. 그러나 근거 자료를 한정하면서 직관에 기대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도록’, 말뭉치, 형태, 분포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실제 언어 자료로부터 ‘-도록’의 형태·분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데까지 있다. 그간 제한적인 자료와 결부되어 다소는 직관적으로 확인되어 왔던 근거를 폭넓은 자료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의 결과는 결국 어미 ‘-도록’의 통사적 지위와 의미를 재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 과정을 거쳐 보다 실질적인 언어의 특성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¹⁾

이 글은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현대 국어 문어 말뭉치 중에서 형태소 분석 말뭉치(이하, ‘세종 형태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다. 약 1,000만 어절 가량의 말뭉치인데 이 중에서 ‘-도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²⁾ 어미 ‘-도록’은 어미 ‘-게’ 다음으로 부사절의 설정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사동, 결과 구문 등의 논의 아래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문법 직관에서 출발하여 세부 근거를 수렴하는 방법이 아니라, 되도록 세부 근거에서 출발하여 문법적 특징을 정리해 내는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하향식 연구 방법이 아니라 상향식 연구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무엇보다, 연구자의 직관이 개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 자료를 분석할 때 문법적 판단을 되도록 유보하면서 언어 사용 양상 그 자체부터 파악하려고 말뭉치에서 출발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다만 ‘-도록’이 기본적으로 굴절의 어미나 조사라는 문법적 판단은 전제하였다.

- 1) 세밀한 논의를 위해 통사론적·의미론적 논의는 다음을 기약한다. 통사론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논자의 판단을 많이 개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면의 문제가 아니어도, 이 논의의 성격상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2) 1,000만 어절은 언어의 실재성을 파악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말뭉치는 <2007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CD로 배포된 것이다. 오류율 0.5% 이내로 구축되었으며 2,109개의 파일로 593,927,927바이트이다. 해당 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립국어원(2007)에 되어 있다.

2. “X도록” 형태의 특성

2.1. ‘-도록’과 관련된 형태

‘-도록’이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다양하지 않다. ‘-도록’이 표기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도록”과 “토록”뿐이다.³⁾ 이런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 7종의 국어사전을 검토하였다.⁴⁾ 사전 간에 대체적인 틀은 유사하나 문법적 해석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래 (1)은 사전 7종의 기술을 형태 및 문장 내 분포 환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1) 형태·환경에 따른 유형

구분	형태	환경	비고
ㄱ	도록/토록	연결 어미의 위치	‘도록’은 ‘하도록’의 준말임
ㄴ	도록/토록	종결 어미의 위치	
ㄷ	토록	체언 또는 어근 뒤	

7종의 국어사전에서 어미 ‘-도록’과 관련성이 있는 형태는 “도록”과 “토록”의 두 가지뿐이다. 분포 환경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보인다. 본고에서 말뭉치 검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형태는 “도록” 또는 “토록”이다. 분포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는 (1ㄷ)의 ‘토록’은 일부 사전에서 조사나 접사로 처리할 정도로 (1ㄱ·ㄴ)과 구분되나 유연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3) 붙임표 없이 큰따옴표로 묶인 것들은 단지 검색되어 보이는 형태만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4)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금성관 국어대사전(제2판)』, 『국어대사전(민중판, 수정판)』, 『우리말 큰사전(7판)』,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2. 어미가 아닌 “토록”

본고는 자료에 앞서는 문법적 판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종 계획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말뭉치의 원시 말뭉치를 대상으로 ‘도록’과 ‘토록’을 검색하여 문장을 추출하였다.⁵⁾ 검토를 거쳐 추출된 문장의 수는 12,172이다.⁶⁾ 그 중에서 다음의 974문장은 체언 내지 어근 뒤에 분포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는 해당 어절의 형태와 빈도를 보인 것이다.

- (2) ㄱ. 이토록(184회), 그토록(735회), 저토록(31회)
- ㄴ. 중일토록(10회), 평생토록(14회)⁷⁾

- (3) 영원토록(7회)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2)에 나타나는 ‘토록’을 보조사로 취급하고 있고

-
- 5) 추출 과정에서는 한마루 직접 검색기를 사용하였으며, 처리 과정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엑셀과 한컴오피스의 훈글 등을 사용하였다. 현대 국어여서 한글 코드의 종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추출한 문장은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쳤다. 본고는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국어가 아닌 것이 분명한 (a)와 같은 경우나 ‘-도록’의 통사적 특성을 보여 주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래 (b)와 같은 인용문도 제외하였다. 기타 원문을 확실히 되살릴 수 없는 오탈자가 있는 문장 등도 제외하였다.(밑줄 필자)
 - (a) "인간을 돌아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인세(人世) 홍진(紅塵)이 언제나 가렸나니" 등의 표현이 그 점을 잘 말해 준다.
 - (b) 해방 후에는 '마르고 달도록'에서 '달'이 틀린 일이 허다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 6) ‘-도록’이 한 문장에 여럿 나타난 경우는 통사적 특성을 각각 산출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12,172 ‘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편의상 문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 7) 본고에서는 추상적인 유형(type)을 나타내는 빈도(조성식 편 1990: 1288)는 ‘중’이라는 단위 명사로 표시하고, 그 유형이 구체적으로 구현(token)된 빈도는 ‘회’로 표시하기로 한다.

『금성관 국어대사전』 등에서는 접미사로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 어미로는 보지 않고 있다. 다만 문제는 『조선말대사전(증보판)』의 처리 방식이다. “《-하도록》의 준말”, “(《이러하도록》, 《그러하도록》, 《저러하도록》에서) 《-러하도록》의 준말”이라 하고 있다. ‘이토록’을 ‘이러하도록’의 준말로, ‘종일토록’을 ‘종일하도록’의 준말로 보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고 ‘이토록, 종일토록’의 ‘토록’을 직접적으로 어미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간의 대부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도 (2)의 ‘토록’을 공식적인 어미가 결합된 ‘하도록’의 준말로 볼 수 없다. ‘토록’을 ‘하도록’으로 복원할 가능성도 없고, “X토록”이 말뭉치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일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3)의 경우는 어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4) 형태·환경에 따른 유형(=2')

구분	형태	환경	비고
어미	도록/토록	연결 어미의 위치	‘토록’은 ‘하도록’의 준말임
	도록/토록	종결 어미의 위치	
비어미	토록	체언 뒤	

위의 (1)에서 정리한 “도록” 및 “토록”의 유형은 (4)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어미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것은 어미로서의 “도록, 토록”이다.

2.3. 어미 ‘-도록’

‘도록, 토록’의 검색을 통해 산출된 12,172문장 중에서 974문장을 제외하고 남은 11,198문장이 어미 ‘-도록’이 포함된 문장이다.⁸⁾ 이 중에서 ‘토록’의 형

8) 물론 이 안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들이 있다. 11,198문장은 모든 논의가 끝난 상태의 목록이라기보다 연구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1차적인 목록이라 할 수 있다. ‘되도록’과 같이 공식적·분석적으로 어미가 맞는지에 대해 의문시할 수

태가 출현하는 것은 621회이고 ‘도록’의 형태가 출현하는 것은 10,577회이다.

그런데 ‘도록’의 10,577문장과 ‘토록’의 621문장은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백낙천(1994: 324)에서는 ‘하도록’이 ‘토록’으로 축약되는 환경을 선행 요소의 종류에 따라 파악하였다. 대체로 상태성·고유어 어근보다 동작성·한자어 어근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말뭉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5) 선접 어간별 형태의 빈도9)

선접 어간 형태	‘-하-, -답-, -되-, -스립-, -시키-, -받-, -당하-’에 의한 파생어임/아님	동사/형용사/지정사
도록	2468회/8109회 (23.3%/76.7%)	7541회/3032회/4회 (71.3%/28.7%/0.0%) ¹⁰⁾
토록	621회/0회 (100.0%/0.0%)	600회/21회/0회 (96.6%/3.4%/0.0%)

(5)의 빈도를 보면 ‘도록’보다 ‘토록’ 쪽에 동사와 ‘-하-’ 등에 의한 파생어를 어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 표의 100%와 0%라는 차이는 ‘토록’이 ‘하도록’의 축약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일단 단어 구성을 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관성을 취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되도록’은 부사적 용법도 눈의 띄지만 ‘아침이 되도록 그는 서 있었다.’와 같이 서술어로서의 용법도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엔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여 배제하기보다 어미 ‘-도록’의 연구 대상, 즉 대상 말뭉치에는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 9)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행 성분, 후행 성분’이라는 용어에 추가하여 ‘선접 성분, 후접 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분포를 세밀하게 가리키기 위함이다. ‘선행, 후행’은 기준 성분의 앞이나 뒤에 오는 성분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고, ‘선접, 후접’은 기준 성분과 인접하여 앞서거나 뒤서는 성분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자 한다.
- 10) 이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였다.

판단은 ‘토록’이 ‘하도록’의 축약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하향식 귀결이다. 거꾸로 상향식으로 말뭉치 출현 형태로부터 출발한다면 위의 결과는 ‘토록’이 ‘하도록’과 관련이 되고, 나아가 ‘도록’과 같은 것임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된다. ‘토록’이 동사 어근 뒤에서 더 잘 드러나는 이유도 ‘토록’에 포함되어 있는 접사 ‘-하-’의 과생 특성에 따른 것일 수 있다.¹¹⁾

3. ‘-도록’의 분포적 특성

621회의 ‘토록’은 ‘하도록’의 준말이므로, 어미 ‘-도록’에 해당하는 문장은 일단 ‘하도록’의 축약형을 포함하여 11,198문장으로 확정된다. 이 장에서는 ‘-도록’의 연결 특성을 선행 성분 분포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3.1. 선행 성분의 제약

3.1.1. 기존 연구

‘-도록’은 주로 ‘-게’와 함께 부사절이나 사동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또한 후행절 사태가 선행절 사태보다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게, -(으)라고, -(으)러, -(으)려고’ 등의 연결어미와 함께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도록’과 결합되는 성분의 특징으로 시상 어미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기본적으로는 선행형 서술어의 품사가 고려되었다. 다음은 그동안 ‘-도록’의 선행 성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선행 성분 내지 선행 절 중에서도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 어간과 그 사이에 선접할 수 있는 선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¹²⁾

11) 단, 위의 사실이 ‘토록’ 출현의 경향성을 규칙화하는 것은 아니다. 백낙천(1994: 324)에서도 ‘-도록’ 축약형을 모든 ‘하다’와의 결합에서 일괄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어근의 의미 자질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겐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단서 아래 언급하였다.

(6) ‘-도록’의 선행 성분 제약

결합 가능성 선행 성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가능	제한적	불가능	
어 간	동사	윤평현(1981), 이은정(1983), 김재운(1983), 정정덕(1986), 김승곤(1986), 서정수(1987), 전혜영(1989), 최재희(1989), 윤평현(1989), 백낙천(1994)		
	형용사	정정덕(1986), 최재희(1989)	김재운(1983), 김승곤(1986), 서정수(1987), 윤평현(1989)	윤평현(1981), 이은정(1983), 전혜영(1989)
	‘NP -이다’			윤평현(1981), 김승곤(1986), 이은정(1983), 윤평현(1989), 최재희(1989), 석주연(2006)
	‘아니다’			윤평현(1981), 이은정(1983), 윤평현(1989)
선 어 말 어 미	‘-시-’	서태룡(1979), 김승곤(1986), 윤평현(1989), 백낙천(1994), 이은경(2000)		
	‘-었-’	최재희(1989)		
	‘-겠-’	최재희(1989)		서태룡(1979), 김재운(1983), 권재일(1985), 정정덕(1986), 김승곤(1986), 전혜영(1989), 윤평현(1989), 백낙천(1994), 이은경(2000)
	‘-더-’			서태룡(1979), 김재운(1983), 권재일(1985), 김승곤(1986), 정정덕(1986), 백낙천(1994)

- 12) 물론 아래의 논의 외에도 ‘-도록’의 분포에 대해 참고할 만한 논의가 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읍-’이 제약 없이 결합된다는 서태룡(1979), 윤평현(1989) 등의 논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대 국어의 생산적인 어미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읍-’ 등은 기존 논의에서 언급되었더라도 논의로 하였다. 현대 국어의 대단위 말뭉치라 할 수 있는 웹을 검색했을 때도 어미로서의 ‘읍도록’은 거의 검색되지 않는다. 검색이 되는 소수의 예도 관습화된 기도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제한적 결합에 해당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김재운(1983)에서는 형용사가 심리적·감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도록’이 결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승곤(1986: 246)에서는 형용사에 쓰이긴 하나 올바른 용법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정수(1987: 63)에서는 “특수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비동사성]의 선행 용언과는 어울리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 윤평현(1981)과 윤평현(1989)는 형용사에 대한 파악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윤평현(1989)에서도 이때의 형용사가 동사가 줄어든 형태이거나 의미가 이미 동사적인 것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깊도록’은 ‘깊어지도록’의 뜻이라는 것이다. 결국 ‘예외적’에 해당하는 견해들은 기본적으로 ‘-도록’이 결합될 수 없다고 본 것이어서 ‘불가능’ 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예외를 처리하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 ‘-도록’의 결합을 비문법적 현상이라고 재단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위에서 특이한 견해는 “‘-도록’ 접속문의 S1에는 어떠한 시상요소도 결합될 수 있다.”라는 최재희(1989: 197)의 주장이다. 그리고 가장 분분한 견해는 선행 어간으로서 형용사가 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또한 형용사와 관련하여 같은 상태성 동사로 묶일 수 있는 ‘이다’와 ‘아니다’의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2. 말뭉치에 나타난 ‘-도록’의 분포

11,198문장에서 ‘-도록’과 선행 어간 사이에 선어말 어미가 개입된 경우는 ‘-시-’ 1종 20회뿐이었다. 비록 그 빈도는 낮더라도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문의 조건이 맞다면 ‘-시-’를 삽입할 수 있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상의 선어말 어미 ‘-었-, -겠-, -더-’ 등은 익히 논의된 것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재일(1985: 58)에서는 선·후행문의 시간적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혜영(1989: 149)에서도 선·후행절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관계 의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7) 말뭉치에 나타난 ‘-도록’의 선행 어간 분포

문법 범주	구현 빈도 (비율)	유형 빈도 (비율)	비고
동사 어간	8,141회 (72.70%)	1827종 (96.36%)	
형용사 어간	3,053회 (27.26%)	65종 (3.43%)	
‘NP-이-’	4회 (0.04%)	4종 (0.21%)	‘NP’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함
‘아니-’	0회 (0.00%)	0종 (0.00%)	
<합계>	11,198회 (100.00%)	1,892종 (100.00%)	

위의 표는 기존 논의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선행 어간을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로 분류한 것이다. 네 가지 범주 이외의 성분은 출현하지 않았다. 동사가 형용사보다 비율이 높는데 특히 유형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어휘별로 빈도를 추출하여 본 아래의 예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형용사가 구현 빈도에 비해 유형 빈도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출현 비율이 몇몇 유형(어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8) ㄱ. 선행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내림차순)

있-(1921회)	밝뜻-(34회)	쉽-(18회)	좋-(12회)
없-(342회)	살-(30회)	아프-(18회)	...
오래-(164회)	깊-(26회)	않-(16회)	
가능하-(69회)	무섭-(26회)	지겹-(14회)	
늦-(46회)	놀랍-(22회)	유리하-(12회)	

ㄴ. 선행 어간이 동사인 경우(내림차순)

않-(793회)	지나-(85회)	살펴보-(45회)	결정하-(27회)
되-(661회)	나-(76회)	사용하-(38회)	느끼-(27회)
하-(251회)	가-(65회)	오-(37회)	두-(27회)
못하-(228회)	쓰-(62회)	나가-(34회)	시리-(27회)
보-(133회)	보이-(59회)	이루어지-(34회)	연-(26회)
남-(122회)	맞-(57회)	보고하-(31회)	이르-(25회)
밤새-(113회)	나오-(54회)	유지하-(31회)	만들-(22회)
주-(98회)	내-(53회)	먹-(30회)	갖추-(21회)
갖-(95회)	죽-(49회)	제출하-(29회)	닿-(21회)
받-(88회)	살-(46회)	참여하-(29회)	따르-(21회)

마르-(21회)	수행하-(18회)	드리-(14회)	생각하-(13회)
이루-(21회)	잡-(18회)	들어가-(14회)	올리-(13회)
터지-(21회)	지키-(18회)	발표하-(14회)	적용하-(13회)
활용하-(21회)	처하-(18회)	부담하-(14회)	정하-(13회)
내리-(20회)	선택하-(17회)	새-(14회)	줄이-(13회)
들-(20회)	처리하-(17회)	알-(14회)	높이-(12회)
미치-(20회)	설치하-(16회)	올리-(14회)	돌아가-(12회)
있-(20회)	시행하-(16회)	이해하-(14회)	든-(12회)
취하-(20회)	실시하-(16회)	자라-(14회)	성장하-(12회)
말-(19회)	찾-(16회)	지내-(14회)	유지되-(12회)
쉬-(19회)	해결하-(16회)	지원하-(14회)	향하-(12회)
지-(19회)	넘치-(15회)	포기하-(14회)	흐르-(12회)
당-(18회)	발휘하-(15회)	배우-(13회)	...
말-(18회)	짓-(15회)	보내-(13회)	
생산되-(18회)	가지-(14회)	사-(13회)	

위의 예는 전체 11,198회의 0.1%이상을 차지하는 예만 제시한 것이다. 그 중에서 형용사를 보면 ‘있다’의 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별도로 구별된 동사 ‘있다’는 20회 출현하였다. ‘-(으)르 수 있도록’의 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없다’의 비율이 높은 것도 ‘-(으)르 수 없도록’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동사에 비해 낮은 비율로 쓰인다 뿐이지, 문 구조의 차원에서 제약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윤평현(1989)의 견해처럼 “동사가 줄어든 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래도록’과 같은 예를 보면 의미상 동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래도록’과 같은 예를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동사적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예들을 본다면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의 요인이 선행 어간에 있는지 ‘-도록’에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깊도록 하다’와 ‘깊을 정도로 하다’를 비교해 보면 동사적 의미, 즉 과정적 의미가 ‘깊’에 있지 않고 ‘-도록’이나 ‘-을 정도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 선행 어간의 제약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9) ㄱ. 넓은 레이스의 황홀한 황후복도, 머리의 황금장식도, 목걸이의 황후문장도, 마법의 지팡이가 지니는 그 몽상적이라도 달콤한 꿈

까지도 모두 빼앗아갔다.

- 나. 그것은 타락이라기보다 그녀를 더 완벽한 미녀이도록 했다.
- 다. 그러나 이 때의 추상화란 말도 단순히 그 어의를 애매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다 함축적이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르. 혼인한 지 십 년이 넘는 성익의 아내는 이번이 처음이도록 여러 해 동안을 벌 수 없던, 생사조차 모르던 영월 아저씨였다.

대개의 논의에서 ‘-도록’이 ‘이다’에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합되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예는 예외적인 경우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예를 보면, 특히 (9ㄱ-ㄷ)을 보면 예외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¹³⁾ 형태·분포적으로는 ‘-도록’ 앞의 선행 어간으로 ‘이다’가 제약을 받는다고 설정할 필요가 없다.

- (10) 꿈은 오늘 아침만은 내가 자명종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도록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다. (‘SJ-RIKS 코퍼스’)

‘이다’에 대응된다 할 수 있는 ‘아니다’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500만 어절 상당의 ‘SJ-RIKS 코퍼스’에서는 1회 검색이 된다.¹⁴⁾ 웹 검색을 통해서도 검색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이다’와 동개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말

13) 다만 문제는 ‘이다’에 제약이 없다면 왜 이렇게 빈도수가 낮은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의미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윤평현(1989: 127-128)에서는 ‘-게’와 ‘-도록’을 비교하면서 ‘-게’가 “정지적”이거나 “정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인데 비해 ‘-도록’은 “경과적”이거나 “동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적인 특성은 상태성이 강한 형용사보다 과정성·동작성이 강한 동사와 어울리기 쉽고, 지정사가 서술하는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도록’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 “SJ-RIKS Corpus(Sejong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는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세종형태의미 분석 코퍼스>를 수정, 보완한 코퍼스로서 최초 구축 당시보다 약 250만 어절이 추가되어 약 1,500만 어절에 달하는 대규모의 분석 코퍼스이다. (...중략...) 전체 428개 파일로서 정확한 어절 수는 14,708,028 어절에 이른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db.koreanstudies.re.kr/sjriks/sjriks.jsp>)

뭉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현대 국어 어미 ‘-도록’의 선행 성분 제약

선행 성분		분포 제약	출현 빈도
어간	동사	없음	약 73%
	형용사	없음	약 27%
	‘NP-이다’	없음	미량
	‘아니다’	없음	미량
선어말 어미	‘-시-’	없음	0.1%
	‘-었-’	있음	0%
	‘-겠-’	있음	0%
	‘-더-’	있음	0%

3.2. 후행 성분의 제약

후행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도록’과 함께 한 어절을 이루는 후접 성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록’에 의해 수식을 받는 성분이다. 흔히 후행절로 언급되는 피수식 성분이 꼭 절 자격으로 오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이든 어절이든 해당 성분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1. 후접 성분

먼저 후접 성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접 성분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12) ‘-도록’의 후접 성분 제약

결합 가능성 선행 성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가능	제한적	불가능
격조사			김재윤(1983)

보조사	서태룡(1979), 권재일(1985), 윤평현(1989), 백낙천(1994)	김재윤(1983)	
-----	-----------------------------------------------	-----------	--

‘-도록’에 바로 결합되는 성분이 조사의 범주 안에 든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도록’의 후접 성분은 그 중에서도 격조사나 보조사로 한정된다. ‘-도록’이 어미이기 때문에 인용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는 격조사가 올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다. 이러한 파악들은 격조사와 보조사를 나누는 기본적인 요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보조사의 분포에 대한 것이다. 김재윤(1983)에서는 첨사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결합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권재일(1985)에서는 대부분의 보조사가 결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3) ‘-도록’ 후접 성분의 출현 빈도(총 87회, 약 0.8%)

이면	68회	(동사 ‘되다’ 뒤)
까지	10회	(동사 뒤 7회, 형용사 뒤 3회)
은	2회	(동사 뒤)
만	2회	(동사 뒤 1회, 형용사 뒤 1회)
이나	2회	(형용사 뒤)
밖에	1회	(동사 뒤)
이라도	1회	(동사 뒤)
까지나	1회	(형용사 뒤)

위의 예는 ‘-도록’에 바로 결합하는 보조사를 빈도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가장 많은 후접 성분으로 출현하는 것은 ‘이면’이다. 그런데 이 ‘이면’이 출현하는 68회 모두가 ‘되도록’과 함께 출현한다. ‘이면’이 접속의 기능을 수행할 때 외에는 단일 조사로 인정받는 경우가 적다는 점, ‘되도록’의 단일 부사적 용법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되도록이면’은 단일어화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면’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보조사인지 인용 표현처럼 쓰인 지정사인지는 논하기 어렵다.

‘이면’ 외에는 그리 많은 출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3)의 출현 유형,

웹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출현 가능한 유형을 볼 때 보조사의 결합 제약은 발견되지 않는다. 선행 성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선행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나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지 않다.¹⁵⁾

‘도록’에 인접하여 후행하는 보조사는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유형상으로 특이점을 보이지 않으며, 비록 출현 빈도는 낮다 하나 보조사가 출현하지 않은 11,111의 예에서도 대개 보조사를 결합시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2.2. 후행의 피수식어

‘도록’에 피수식 대상으로 후행하는 성분은 일반적으로는 절이나 그 절을 대표하는 서술어이다. 다양하게 생략된 모습을 보이는 후행 성분들 속에서 기준을 잡기 위하여, 여기서는 서술어로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서술어의 품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만약 서술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술어 대신에 수식을 받는 성분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14) ‘-도록’에 후행하는 피수식어의 제약

결합 가능성 후행 성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가능	불가능
서술어	동사	윤평현(1981), 이은정(1983), 김재운(1983), 정정덕(1986), 윤평현(1989)	
	형용사	윤평현(1981), 이은정(1983), 김재운(1983), 정정덕(1986), 윤평현(1989), 김혜성(1993)	

15) 그나마 ‘까지’가 많이 쓰이는 편인데 이는 의미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도록’의 의미로 ‘도급, 미침, 정도’ 등이 거론되어 왔음을 상기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해당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나열한 것이다. 아래 예를 보면 ‘까지’가 시간 표현 뒤에 쓰이거나 사건이 미치는 영역을 표시하는 등으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과 어울리고 있다.

- (ㄱ) 17 세기가 끝나도록까지, 서른 살이 넘도록까지, 약 10여 년이 넘도록까지, 마흔 둘이 되도록까지, 밤 늦도록까지, 밤늦도록까지 (이상 6회)
- (ㄴ) 언성을 높이도록까지, 상당한 위세를 떨치도록까지, 허가해 주도록까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이상 4회)

	‘NP-이다’	이은정(1983)	김재윤(1983), 윤평현(1989)
서술어의 어미	시상 어미	김승곤(1986)	
	‘-겠-’	김승곤(1986)	
	‘-더-’	김승곤(1986)	
	문장 종결법	김승곤(1986), 전해영(1989), 윤평현(1989)	
	기타 서법	전혜영(1989), 최재희(1989), 이은경(2000)	

위의 표를 보면 기존 연구에서 피수식어로 명사류나 부사류는 제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후행절을 전제로 하여 그 절을 이루는 서술 어간을 중심으로 서법 관련 어미까지 살펴왔다. 서술어의 어미와 관련해서는 큰 제약이 없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이견을 보이는 것은 ‘이다’가 서술 어간으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재윤(1983)과 윤평현(1989)에서는 후행절 서술어로 체언형에 지정사 ‘이다’가 붙는 체언 서술어는 원칙적으로 올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15) ‘-도록’ 후행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가 보이는 출현 빈도

(아래의 비율은 전체 11,086문장에 대한 비율임)

-시-	77회	0.7%
-었-	1,887회	17.0% [‘-었었-’ 9회(0.1%)를 포함함.]
-겠-	253회	2.3%
-더-	92회	0.8%

말뭉치에서도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관련으로는 제약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대상으로 한 선어말 어미 모두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어말 어미도 제약을 보이지 않았다. 약 200여종으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었다. 후행 성분과 관련하여 전체 문장이 11,086문장인 이유는 ‘-도록’의 후행 성분이 없는 경우가 112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16) 말뭉치에 나타난 ‘-도록’의 후행 어간 분포

문법 범주	구현 빈도 (비율)	유형 빈도 (비율)	비 고
동사 어간	10,575회 (95.4%)	1,592종 (86.6%)	
형용사 어간	452회 (4.1%)	211종 (11.5%)	
‘NP-이-’	39회 (0.4%)	26종 (1.4%)	‘NP’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함
부사류	20회 (0.2%)	11종 (0.6%)	
<합계>	11,086회 (100.00%)	1,840종 (100.00%)	

말뭉치를 분석한 위의 표를 보면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다’가 39회 출현한다는 점이다. 아래 (17)은 ‘이다’에 결합되는 명사구에 따라 예를 든 것이다.

(17) 후행 서술어의 어간이 ‘NP-이다’인 경우(내림차순)

말이-(11회)	누적수치이-(1회)	중무소식이-(1회)
추진 중이-(3회)	독립적이-(1회)	즐거움이-(1회)
말씀이-(2회)	독창적이-(1회)	진행중이-(1회)
감감무소식이-(1회)	말단 순경이-(1회)	청원 중이-(1회)
검토 중이-(1회)	미국의 믿음직한 주방의 친구이-(1회)	축제 분위기이-(1회)
극적이-(1회)	숙수무책이-(1회)	충격적이-(1회)
기도 중이-(1회)	유일한 살림 밀천이-(1회)	협의 중이-(1회)
냉혈적이-(1회)	의지적이-(1회)	협조적이-(1회)
노력 중이-(1회)	절망적이-(1회)	

(18) ㄱ. 내가 이 다음에 다시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야.”

- 나. 이를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태극기 디자인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매우 잘된 일이다.
- 다. 문화제의 성격도 그런 식의 행사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도록 말씀입니다.”
- 르. 변소에 간다던 왕골은 10여 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였다.
- 미.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지하철의 운행시간을 밤에 1시간 정도 더 연장하고, 현재 30분 간격인 심야 버스의 운행도 좀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니.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혀대를 푸는 손놀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

도록 그의 동작은 완만하면서도 매우 극적이었다.

- 사. 그러기에 당시 소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들의 생명을 작가가 잔인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저렇게 끊임없이 기도 중이신 것이다.
- 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물신(物神)의 시대, 철면피하도록 냉혈적인 비인간의 시대에 한 사람의 예술가가 된다는 것, 한 사람의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황당무계한 일일까요?
- 자. 토공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안에 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며 『우선 1단계로 30만평을 개발하고 이후 1백만평까지 공단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치용 기자>
- 차. 조립사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소비자의 동참의식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친밀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매년 이 수치는 누적수치임.
- 카. 적어도 그 나이에 맞도록 독립적이고 자기 이익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하는 감정적 성숙 연령이 차 있어야 한다.
- 타. 새로운 이름은 시각적으로 좋아야 했으며 세계 언어학적으로 쉽게 발음이 되어야 했고, 부정적인 뜻이 함축되지 않은 말이어야 했으며 표명상 법적 제재가 전혀 없도록 완벽하게 독창적이어야 했다.
- 표. 그의 이력서에는 표창 경력이 몇 줄 적혀 있었으나, 경찰관 생활을 한 지 8년이 지나도록 그는 말단 순경이었다.

(17)은 ‘이다’ 앞에 오는 명사구의 유형에 따른 것이고 (18)은 각 유형에 대응하는 예를 하나씩 든 것이다.¹⁶⁾ 위를 비롯하여 전체 예를 예외적인 경우라고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¹⁷⁾ ‘-도록’의 후행 성분으로 ‘이다’가 분포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몇몇 예에 대해 추상적인 기저 구조에 동사나 형용사를 상정하여 수식 구조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8)에서 ‘기도 중이신’을 ‘기도하는 중이신’과 같이 대응 서술어가 따로 있다고 보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본고의 연구 방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언어의 실질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20)의

16) 지면 관계상 절반의 종류에 대해서만 예를 든다.

17) 이러한 예들을 놓고 몇몇 예를 지목해서 문법적 평가를 내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보니 연구자의 개인 직관에 따른 이견들이 있어 왔다. 본고는 그렇게 개인적인 직관에 근거하지 않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마지막 예와 같이 추상적인 동사, 형용사를 복원할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들이 있기에 '-도록'이 '이다'로 연결되는 구성을 인정해야 한다.

(19) 후행 서술어의 어간이 부사류인 경우(내림차순)

빨리/부사(9회)	널리/부사(1회)	사실적으로/부사구(1회)
많이/부사(2회)	높이/부사(1회)	있는 그대로/부사구(1회)
간결히/부사(1회)	명문고 출신에/부사구(1회)	천천히/부사(1회)
고통 없이/부사구(1회)	분명히/부사(1회)	

(20) 가. 이렇게 독자에게 이해시켜야 할 부분을 요약할 때는 되도록 간결히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작품 속 다른 이야기와 연계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서술해 내야 한다.

- 나. 그것도 되도록 널리, 되도록 많이 자기 존재를 귀따갑게 외쳐야 한다.
- 다. 되도록 높이 다는 것은 잡귀를 물리침이고 정성이며 고결과 성결이다.
- 르. 그리고 되도록 분명히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리. 그 길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었다.
- 비.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 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되도록 고통 없이 죽는 거였다.
- 오. 그리하여 되도록 명문고 출신에 지위 높고 부유한 집안, 늘씬한 키에 여자인 경우는 반드시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고시 합격자나 의사, 박사 등 모든 조건에서 100점 인물을 찾고 있다.
- 저. 주인공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임씨는 무대 위에 되도록 사실적으로 재현해 놓았다.
- 차. 고전 작가의 최대 이상은 어떤 외부 실제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면을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재생하는 것이다.

(16)의 말뭉치 분석 결과를 놓고 주목할 두 번째 사항은 부사류가 20회 출현한다는 점이다. (19)는 해당 유형을 제시한 것이고 (20)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본 것이다. “도록”이라는 형태에만 주목한다면 “도록”의 결합형이 후행하는 부사나 부사구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록”의 결합형이 항상 ‘되도록’의 형태라는 점, 그 ‘되-’가 서술성을 가지고 문장 성분을 거느리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사형 어미 내지 연결 어미가 결합시키는 것은 절과 절이라는 일반적인 원리, 기존 사전에서 ‘되도록’을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 기존 연구의 대체적인 견해도 감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20)의 예들을 문제로 삼을 만한 마땅한 이유는 없다.

(21) ㄱ. 후행 서술어의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내림차순)

없-(35회), 아름답-(20회), 필요하-(19회)...

ㄴ. 후행 서술어의 어간이 동사인 경우(내림차순)

하-(4126회)	촉구하-(31회)	웃-(18회)	유지하-(14회)
되-(327회)	취하-(31회)	가하-(17회)	잡-(14회)
만들-(295회)	주-(29회)	강화하-(17회)	정하-(14회)
노력하-(195회)	만들어지-(28회)	고치-(17회)	주선하-(14회)
유도하-(116회)	시키-(28회)	돌아오-(17회)	지키-(14회)
지시하-(104회)	주의하-(28회)	두-(17회)	권장하-(13회)
도와주-(99회)	피하-(27회)	모르-(17회)	듣-(13회)
규정하-(93회)	바꾸-(25회)	애쓰-(17회)	살-(13회)
돕-(68회)	가르치-(24회)	갖추-(16회)	서-(13회)
요구하-(65회)	조치하-(23회)	고안되-(16회)	있-(13회)
쓰-(63회)	개정하-(22회)	내-(16회)	제한하-(13회)
지원하-(44회)	규정되-(22회)	내리-(16회)	통보하-(13회)
강요하-(43회)	기다리-(22회)	말하-(16회)	가지-(12회)
내버리-(43회)	명령하-(22회)	방치하-(16회)	개선하-(12회)
배려하-(41회)	보-(22회)	보장하-(16회)	보내-(12회)
허용하-(41회)	울-(22회)	제공하-(16회)	오-(12회)
힘쓰-(41회)	지도하-(22회)	권유하-(15회)	자-(12회)
반-(37회)	추진하-(21회)	권하-(15회)	자극하-(12회)
요청하-(36회)	당부하-(20회)	남-(15회)	조절하-(12회)
다하-(35회)	설계되-(19회)	막-(15회)	합의하-(12회)
이끌-(35회)	설득하-(19회)	바라보-(15회)	협력하-(12회)
조심하-(35회)	열-(19회)	준비하-(15회)	협조하-(12회)
권고하-(32회)	의무화하-(19회)	꾸미-(14회)	...
기울이-(31회)	차-(19회)	놓아두-(14회)	
마련하-(31회)	마시-(18회)	부추기-(14회)	

위의 예는 ‘-도록’의 후행 서술어로 동사, 형용사가 오는 경우를 보여 준다. 전체 11,198회의 0.1%이상을 차지하는 예만 제시한 것이다. 발견되는 특징으로 ‘-도록’이 피사동을 의미하기 쉬운 ‘하다, 되다, 만들다’가 많이 출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현대 국어 어미 '-도록'의 후행 성분 제약

후행 성분		분포 제약	구현 빈도
부사류		있음	['되도록(이면)': 0.4%]
서술어	동사	없음	95.4%
	형용사	없음	4.1%
	'NP-이다'	없음	0.4%
서술어의 어미	'-시-'	없음	0.7%
	'-었-'	없음	16.9%
	'-겠-'	없음	2.3%
	'-더-'	없음	0.8%

4. 결론

지금까지 말뭉치를 통해 '-도록'의 형태적·분포적 특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이 글에서는 연구자의 직관이 개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언어의 실질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래서 말뭉치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말뭉치 검색 결과를, 논의를 거쳐 11,198문장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미 '-도록'에 선·후행하는 성분의 분포 제약은 아래 (23)과 같이 파악되었다. 이는 특히 선행 성분으로 형용사나 '이다'나 '아니다'가 올 수 있는가 하는 논란, 후행 서술어로 '이다'가 쓰일 수 있는 하는 논란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3) 현대 국어 어미 '-도록'의 선행 성분 제약

위치	문법 성분	분포 제약	출현 빈도
선행 성분	어간	동사	없음 약 73%
		형용사	없음 약 27%
		'NP-이다'	없음 미량

	선어말 어미	‘아니다’	없음	미량
		‘-시-’	없음	0.1%
		‘-었-’	있음	0%
		‘-겠-’	있음	0%
		‘-더-’	있음	0%
후접 성분	보조사		없음	0.8%
후행 성분	부사류		있음	['되도록(이면)': 0.4%]
	서술어	동사	없음	95.4%
		형용사	없음	4.1%
		‘NP-이다’	없음	0.4%
	서술어 의 어미	‘-시-’	없음	0.7%
		‘-었-’	없음	16.9%
		‘-겠-’	없음	2.3%
		‘-더-’	없음	0.8%

그동안 대용량의 언어 자료를 처리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근거를 직관에 의지하여 수집하거나 적은 양의 자료로 한정된 수집을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1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작업으로 ‘-도록’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게’를 비롯한 다른 어미와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며, 연결 어미로서의 ‘-도록’과 종결 어미로서의 ‘-도록’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도 말뭉치 기반으로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원(2007),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승곤(1986), 『이음씨끝 ‘-게’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 신연구(약선 김민수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탑출판사, 237-247면.
- 김재운(1983), 『‘-도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 분석』, 『국어교육』 46,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55-272면.
- 김혜성(1993), 『‘-도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 『말』 18, 연세대 한국어학당, 63-79면.
- 백낙천(1994), 『접속 어미 ‘-도록’과 ‘-을수록’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6, 동국어문학회, 317-328면.
- 사회과학출판사 편집부(2006),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서정수(1978), 『국어 부사류어의 구문론적 연구』, 『국어 구문론 연구』, 탑출판사, 207-238면.
- 서태룡(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국어학회, 109-135면.
- 석주연(2006),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109-135면.
- 양정석(2007), 『국어 연결어미 절의 통사론: 핵계층 이론적 분석과 프롤로그 구현』, 『배달말』 40, 배달말학회, 33-97면.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
- 운평어문연구소 편(1999), 『금성관 국어대사전(제2판)』, 금성출판사.
- 윤평현(1981), 『‘-도록’의 의미와 문법』, 『한국언어문학』 20, 한국언어문학회, 27-51면.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 이은정(1983), 「{-도록}의 기능과 의미 유형 고찰」, 『한글』 181, 한글학회, 39-57면.
- 이진병(2014), 「현대 국어 연결 구성의 ‘-게’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 이희승 편(2003), 『국어대사전(민중판, 수정판)』, 민중서림.
- 전혜영(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정정덕(1986), 「국어 접속어미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조성식 편(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한글 학회(2000), 『우리말 큰사전(7판)』, 어문각.

【Abstracts】

Morphological and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dorok*’ in the Corpus

Yi Jin-byeong

This article understands morphological and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dorok*’ within a corp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language, minimizing problems that happen when a researcher’s intuition intervenes. Using a bottom-up research method, a corpus is selected. From the search within the corpus, 11,198 sentences were discussed and extracted. Distribution restriction of constituents leading and advancing an ending ‘-*dorok*’ is understood. Objective evidence to a controversy ‘whether adjective, ‘*ida*’, or ‘*anida*’ can be used as leading entry or not’ and ‘whether ‘*ida*’ can be used as advance predicate’.

There are problems such as collecting evidence becoming a theoretical evidence by relying on an intuition or collecting a small quantity of materials limitatively. This writing is a basic study to supplement these problems.

Key words: ‘-*dorok*’, corpus, morph, distribution

이 논문은 2016년 5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